

SPECIAL - 2

특집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New Vision 제시를 위한 과거와 미래 고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획관리팀장 강 용 진

2003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 탄생배경 및 필요성

■ 내수위주의 성장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전환필요

- 우리나라의 중전기 산업이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하였으나
 - 내수 및 관납위주의 성장으로 수출경쟁력이 미흡하고
 - 기술도입에 의한 조립위주 성장으로 핵심소재 및 부품제조 기술이 취약하며
 -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으로 국내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 ⇒ 기술개발을 요체로 하는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 수출산업화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동향 소개와 국내 기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 개최 필요

■ 89년 부터 열려 온 서울국제산업전력전 지속적 개최 불가능

- 서울국제산업전력전 주관기관인 COEX의 국내외 홍보한계, 전기기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성과미흡
- 업계참여 기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오다 '92년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 '93년 10월중 개최예정이었으나 그간 후원해 온 전기조합이 협조 불가 의사를 통보하고, 참여업체가 전무하여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

■ 국내 업계에서도 내실있는 국제전 개최를 위하여 중전기 관련단체의 주관을 희망

- 전기진흥회 주관, 각 조합 등의 협조로 국내 중전기 기술력의 체계적인 홍보가능
- 생산자 관련단체에서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능



【전기기기 생산자 관련단체 중심의 국제전 개최필요】

- 명칭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eoul Int'l Electric Fair)
- 주최 :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
- 주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후원 : 전기조합, 전선조합 등
- 개최주기 : 격년제 개최(제1회 : '94년 7월 개최)
- 전시품목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용 관련기기 일체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가. 추진실적

■ 총괄

- '94년 제1회 전시회는 현대, 효성, LG 대기업 3사와 80여 중소기업, 수요처인 한전 등이 참가하여 기존 국제산업전력전의 4배이상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 그동안 내수 및 관납위주로 성장해 온 국내 전기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산제품의 인식제고 및 국제화를 유도하여 수출촉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와 향후 전시회 성공 가능성을 밝게 함
 - 그러나, 해외업체 및 바이어가 저조하고, 출품제품이 복잡하고 경량화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96년 제2회 전시회 규모가 18%정도 증가하였고, 제3회 전시회는 IMF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전에서 중전기 국제경쟁력을 위하여 '91년부터 1,000억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한 제품출시와 KOTRA에서 40개국 270명 해외바이어 초청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국제전 위상 발판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었음
- '99년 부터는 한전이 협력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부스

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IMF 외환위기 속에서 중전기기업체의 내수 및 수출활성화 계기를 마련함

- 2002년 제7회 전시회는 산업자원부에서 해외바이어 초청비를 지원하고, 출품업체도 다양하고 경량화된 첨단제품을 출시하여 국제전시회의 위상정립이 되었고, 또한 규모 및 참가객면에서도 아시아지역 전력·전기전중 최고의 수준에 도달함
- 2003년 제8회 전시회는 산업자원부, 한전 등의 지원으로 "Special Buyer's Program" 운영을 통하여 379명의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 국내 참가업체와 수출상담 및 우수기업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전문 전시회"로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함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최 성과표」

구분 (회전시장소)	참가업체 (개사)	부스규모 (1부스=9㎡)	국내 참관객 (명)	해외 바이어 (명)	상담규모 (내수, 수출포함, 백만불)
1994년 (제1회, COEX)	80 (해외 16)	252	4,000	50	130
1996년 (제2회, COEX)	95 (해외 29)	277	4,500	65	80
1998년 (제3회, SYEX)	98 (해외 12)	294	6,000	120	270
1999년 (제4회, SETEC)	108 (해외 9)	307	10,000	75	250
2000년 (제5회, SETEC)	124 (해외 19)	310	10,000	80	100
2001년 (제6회, SETEC)	132 (해외 18)	379	10,000	90	173
2002년 (제7회, SETEC)	120 (해외 14)	320	10,000	170	180
2003년 (제8회, SETEC)	124 (해외 21)	300	8,000	379	200
총계	881 (해외 138)	2,439	62,500	1,029	1,383

* 자료 : 전시회 결과보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4~2003

■ 해외전력청 구매담당자 초청 특별 수출상담회 개최

○ '98년 부터 일본 전력기자재 해외 구매정책에 따라

2003년까지 매년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케이블트레이, 금구류 등 일부 품목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품목은 요구조건 등이 까다로워 일본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2000년 부터 주력시장인 동남아시아 전력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신흥시장인 중국, 중동지역 전력청 관계자 초청사업도 병행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됨

「해외 전력청과의 구매상담」

국별	일본	태국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계
횟수	6	2	1	1	1	2	1	1	15

■ 전기산업 수출유공자 포상

- '98년 부터는 그동안 전기산업이 전통산업 및 내수 위주 산업으로서의 인식을 IT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혁신 주도형 산업으로 이미지를 전환하고
-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 및 타 산업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으로써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기업계의 기술 개발 및 수출촉진 의욕을 고취시켜

「포상 실적」

(단위:명)

구분	제1회(1998년)	제2회(1999년)	제3회(2000년)
대통령표창	-	-	1
국무총리표창	-	-	2
산업자원부장관표창	5	3	2
중소기업청장표창	5	3	3
진흥회장표창	8	5	6

구분	제4회(2001년)	제5회(2002년)	제6회(2003년)	총계
대통령표창	1	1	1	4
국무총리표창	2	2	2	8

구분	제4회(2001년)	제5회(2002년)	제6회(2003년)	총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5	5	5	25
중소기업청장 표창	5	5	5	26
진흥회장 표창	6	6	8	39

※ 2004년은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3점 확정

○ 국민경제 및 국가적 고용창출에 전기업체가 기여할 필요성이 있어 "전기산업 수출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부터는 기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에서 대통령표창으로 훈격을 상향하여 포함함

■ 전기산업 신기술 세미나 개최

○ 정부시책, 최근 신기술 등 국내업체 위주로 6회 실시

나. 출품품목 및 참관바이어 성향 분석

■ 출품제품 참가 비중

○ 참가업체 출품품목 비중을 보면 계측기기가 20.1%로 가장 높고, 배전 및 변환장치, 변압기, 차단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단위: %)

발전기및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4.8	13.7	11.3	4.8	
배전및변환장치	전선	계측기기	기타	계
19.3	1.6	20.1	24.4	100

■ 참관바이어 성향

○ 직업비중

- 제조업 근무자가 50.9%로 가장 많고, 실질적인 구매와 연관된 전기공사 및 건설업 관계자도 16.1%를 차지

(단위: %)

제조업	무역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50.9	7.0	8.4	7.7
연구소및대학	정부투자기관	기타	계
6.8	4.8	14.3	100

○ 직종비중

- 기술 및 연구개발직이 49.7%로 참관목적 비중이 높은 신기술동향 파악과 일치하며, 영업 및 구매부서도 19.4%로 비중이 높음

(단위: %)

생산	경영관리	기술직	연구설계	
11.5	7.6	30.5	19.2	
구매자재	품질관리	영업무역	기타	계
7.1	3.3	12.3	8.4	100

○ 참관목적

- 신기술동향 파악이 50.4%로 가장 많고, 구매상담은 5.0%로 타산업에 비하여 저조

(단위: %)

신기술동향파악	시장조사	구매상담	
50.4	15.0	5.0	
기술제휴	대리점계약	기타	계
2.5	1.1	26.0	100

○ 관심품목

- 계측기기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이 배전 및 변환장치,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발전기 순임

(단위: %)

발전기및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4.8	13.7	11.3	4.8	
배전및변환장치	전선	계측기기	기타	계
19.3	1.6	20.1	24.4	100

다. 성과분석

■ 출품제품 기술개발 변화

○ 변압기

제1회 전시회(1994년)	제8회 전시회(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식, 건식, 몰드변압기 설계 / 제작은 국산화 ○ 유입식변압기 : 절연지, 프레스보드, 붓싱 및 관련 릴레이류 등은 미 국산화 ○ 몰드, 건식변압기 : 에폭시, 충전재 등은 수입의존 ○ 변압기 감시진단 : 초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5kV급 전력용변압기 ○ 전력용 불연변압기 ○ 철도차량 탑재용 변압기 ○ Amorphous 변압기 ○ 대용량 이동용 변압기 ○ 완전한 자기보호 내장 주상변압기 <핵심기술> ○ 온도실측장치 ○ 예방진단 System 개발 ○ 전계해석기술 등

○ 차단기

제1회 전시회(1994년)	제8회 전시회(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2kV급 초과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부 설계 및 제작기술 국산화 - 붓싱, 절연봉, SF6 가스 등은 일부 수입 ○ 362kV급 이하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2kV 40kA 4000A GIS 까지 국산화 - PT, LA 등의 기기는 수입 ○ 170kV급 이하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kV 4000A 50kA GIS 까지 국산화 ○ 25.8kV급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8kV 2000A 25kA GIS 까지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압 GIS용 Gas VT 설계 및 제작기술 ○ 초고압 GIS의 예방진단시스템 개발 ○ 800kV 6000A/8000A 50kA 대용량GIS 개발 <핵심기술> ○ 대용량 GIS 압력 및 기기해석 기술 ○ 대용량 GIS 3차원 전자계 해석기술 ○ 초고압 가스차단기용 절연 Rod 제작기술 ○ 대용량 GIS용 AI 제관, 용접, 가공기술 ○ 초고압 가스차단기용 Ceramic Resistor 제작기술 ○ 내진 해석기술

○ 개폐기

제1회 전시회(1994년)	제8회 전시회(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부, 조작부, 절연부 등 100% 국산화 ○ 유입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지를 제외한 전 부품 국산화 ○ O-ring, SF6 가스를 제외한 전 부품 국산화 ○ 진공차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loser의 경우 60% 국산화 - 지중차단기의 경우 40% 국산화 - REC-SEC의 경우 40%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능력을 갖는 개폐기 ○ 자동화용 개폐기 ○ Digital 제어방식의 Recloser ○ Spot Network 기차재 ○ 내오손형 COS ○ 무접점 개폐기 <핵심기술> ○ 복합소호형 가스차단부 설계기술 ○ 광 Sensor류 개발 ○ 전력용 반도체 등

○기타

품목	제1회 전시회(1994년)	제8회 전시회(2003년)
계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종류는 개발치 못하고 초기에는 과전류 계전기 등 단순한 보호계전기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자동계전기 등 다소 복잡한 보호계전기의 설계제작은 국산화 ○ 송전선 보호용의 고기술의 보호계전기는 수입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식 보호계전기 개발<핵심기술> ○ 다기능화 ○ Noise 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 ○ 하드웨어 설계
피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갭형 및 갭레스 배전용 2.5kA 피뢰기의 설계 제작은 국산화 ○ 폴리머형 변전용 21kV, 1010kA 피뢰기의 설계 제작은 국산화 ○ 관련특성소자, 애자 및 절연재 부속기기 등은 외국 수입 의존 ※ 배전용 및 폴리머 피뢰기는 초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용 18kV 폴리머 피뢰기 ○ 변전용 21kV 폴리머 피뢰기 ○ ZnO 피뢰기 특성소자 ○ 폴리머형 저압 피뢰기<핵심기술> ○ ZnO 특성소자 ○ 피뢰기열화 표시기 개발 ○ 피뢰기용 폴리머 절연물 개발 ○ 피뢰기용 폴리머 절연물의 열화 평가기술 개발 등
애자류 및 붓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애자(22.9kV, 154kV, 345kV) ○ 지지애자(22.9kV) ○ 포스트애자(22.9kV) ○ 붓싱애자(22.9kV, 72.5kV)등은 100%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5kV급 초고압용 현수애자 ○ GCB 및 GIS용 170kV급 Gas 붓싱 ○ 피뢰기용 라인포스트 애자 ○ 154kV급 이상의 전기기기 절연붓싱<핵심기술> ○ 고강도용 소재, 응력해석 기술 ○ 콘덴서 Core 설계 및 제조 ○ 밀봉구조 설계 및 제조기술 ○ 신소재 애자 등

■ 출품품목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력 비교

○ 1994년 전품목이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50~60% 이었으나 현재는 80~90%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구분	한국	최고기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고
변압기	88	100(미국)	79(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붓싱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미국)	95(일본)	견인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도입
발전기	80	100(미국)	95(일본)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미국, 일본)	89(일본)	자동조작회로 설계 및 방한 장치 설계 부족

구분	한국	최고기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고
차단기	81	100(미국)	89(일본, 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 산업 기술취약
전력변환장치	85	100(일본)	100(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제품 모방

■ 수출증가 변화

- 1994년 1,170백만불에서 2003년 2,495백만불로 113.2% 증가하였으며
- 전동기, 변압기, 전선 중심에서 배전 및 제어기, 변환 및 안정기, 애자, 금구류, 배선기구 등 기타 중전기기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순이었으나 2000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됨

■ 산업상 위치변화

- 1994년 업체수가 2,703개에서 2002년 3,896개로 년 평균 5%이상 증가하였으며
- 생산액도 4조 2,000억원에서 17조 1,7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도 7만4천명에서 9만7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GNP 대비하여 1.5%에서 2.1% 상승하여 규모면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향후 전기산업 변화에 따른 전시회 발전전략 고찰

가. 세계 전기산업 변화 예측

- 중전기기 시장에 새로운 환경 도래
 - 지역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사업 추진
 -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의 증대
-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핵심역량 위주의 산업 구조 개편

■ 차세대 시장선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전개

-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술 등 IT 기술 응용범위의 다양화와 디지털화 급속전개
- 초전도 전력기기 상용화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

■ 선진업체의 후진국 견제 및 원가절감 노력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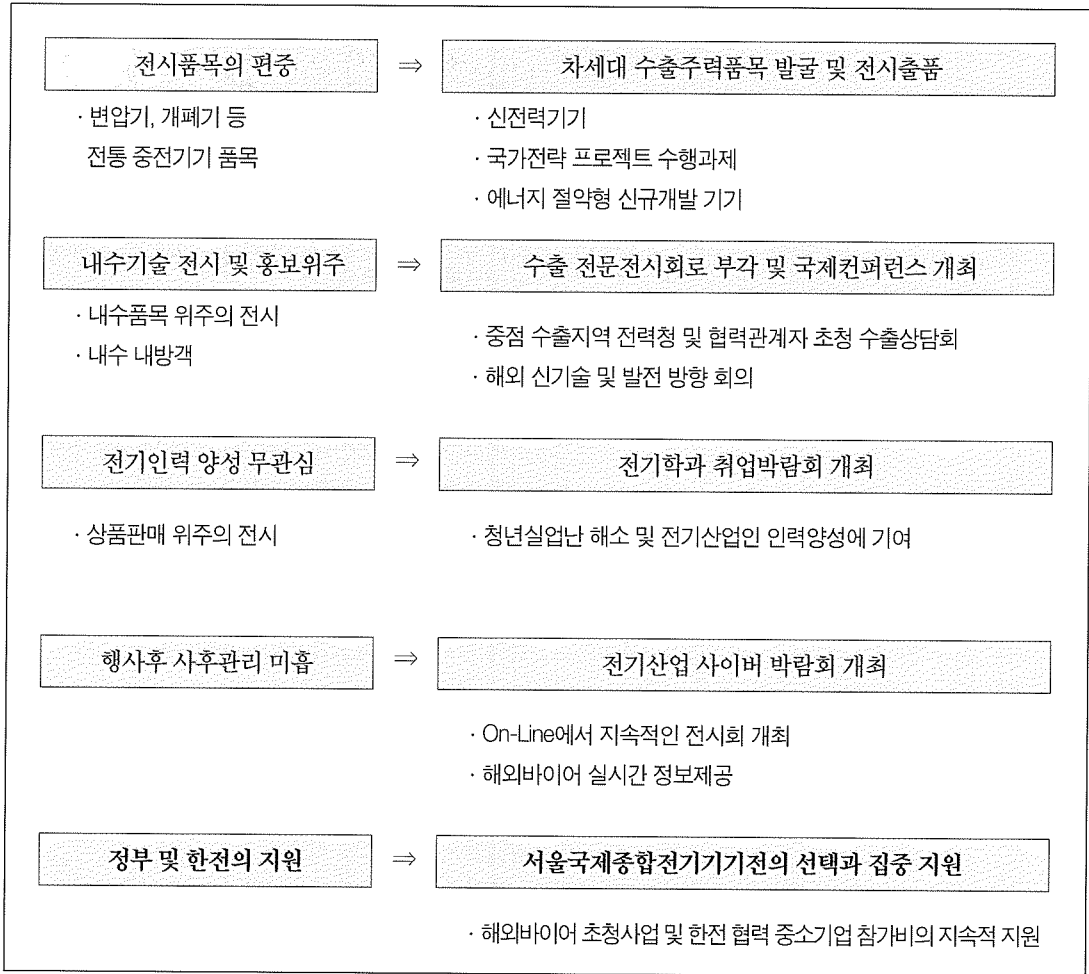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유럽 등 전력선진국 들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간의 기술제휴를 강화하고, 후발국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경쟁력의 우위확보 시도
-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의 공장부지와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저가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 향후 세계시장 전망

- 세계 전력기기와 설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전쟁 종료후 전력플랜트 수주로 중동지역 수요증가 예상
 - 남미,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설비 구축으로 전력기기와 설비시장의 수요증가 전망
- 정보화된 전력기기 또는 디지털기기의 경우 전통적 중전기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 IT 관련기기는 매년 12.5%의 고성장 전망

나. 미래전시회 발전전략 고찰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기본 발전방향〉



■ 출품품목의 다양화와 선진화

- 변압기, 개폐기 등 전통품목 위주에서 신전력 IT기기를 중심으로 변화
 - 초고압 · 대용량 전력기기 및 전력변환장치
 -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술, 신소재기술 등 첨단기술
- 국가전략 Project 수행 제품 전시
 - 초전도 전력기기,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Multi-Agent 기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과제 출품
 - 전기설비 운용기술, 대용량 수송기술, 신발전기술,

전기 안전기술 과제 등

○ 발전 및 에너지 절약형기기 등 출품품목 다양화

■ 전기산업 수출전문 전시회로 차별화

- 2003년부터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면서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음
- 향후 중전기기 특성상 해외 전력청 구매관계자, 유망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여 수출전문 전시회로 부각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신규로 진입하는 유사 전기전과 차별화를 해야 함
 - 동남아시아 전력청 구매관계자 초청 수출상담회
 - 새롭게 부각하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화교바이어 수출상담회
 - 중남미지역 전기수출상담회 개최 등
-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하여 북한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병행
- 전시기간중 내방한 해외바이어를 사후관리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
-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인근국가와 동일품목 전시회와 연계하여 공동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아시아지역 순회 전기산업전 개최 검토

- 그동안 전시회는 10년 노하우 갖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선 규모면에서 최대 규모임
- 또한 전기진흥회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인도, 대만, 태국, 필리핀, 호주, 중국 등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또는 상호 정보교환 하고 있는 바
- 범 아시아 전기산업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전시회도 병행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각 나라별 순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함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기존에는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자사제품 발표회를 개

최하였으나 향후는 세계적인 석학 또는 연구소 책임자를 초청하여 중전기기 첨단신기술 발표회를 하거나

- 아시아지역 또는 세계 전기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토로 토론회를 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이버 전기산업 박람회 구상

- 11월중 4일동안 Off Line에서 개최되는 전기전시회는 종료와 동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비용으로 참가한 업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기진흥회 홈페이지내에 차기 전시회전까지 사이버박람회 개최하여 전시회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마련

■ 전기인 취업박람회 병행 개최

- 전기학과는 매년 5%이상, 전기학원은 2000년 대비 60%이상 감소, 지방대학 전기학과는 정원미달 등 향후 전기산업 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 전기학과를 육성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기인 취업박람회를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과 병행 개최하여 봄 조성

■ 전기수출유공자 포상훈격 상향

-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여 전기기기의 국산화 촉진과 품질수준을 제고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전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현행 대통령표창 훈격을 산업훈장으로 전시회 규모에 맞게 상향조정 필요성

■ 정부 및 관련기관 지원확대 지속적 유지

- 산업자원부의 해외바이어 초청사업비로 년 1억원 내외, 최대 수요처인 한전의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스비

- 일부를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위주로 선택하여 집중지원 필요
-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전기산업 전시회 육성
 - 참가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 전기전에 직접 참여하는 장치, 디자인, 설비업체, 호텔 등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간접적 지원이 필요함

■ 주최자의 전시회 DB구축으로 미래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외마케팅 선진기법 도입

- 전시주최자인 전기진흥회에 바이어, 행사내용 등을 자체 DB를 구축하여 향후 참가업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 PCMA, IAEM, AACUB, CERl 등 세계적인 전시 및 이벤트 연합회 또는 컨퍼런스기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외국의 선진 전시기법 도입을 확대 하는 등 국내전시회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

4. 맺음말

■ 그동안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은 8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으나

- 3개 주관기관(진흥회, COEX, KOTRA) →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8년부터 전기진흥회로 단일화
- 전시장소 확보 어려움 → COEX, 여의도전시장, 서울 무역전시장으로 여러번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
- 수출상담회 개최의 어려움 → 전기진흥회 인력부족으로 수출상담회, 바이어초청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추진
- 개최주기 → '98년까지 2년마다 개최하였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99년 부터 매년 성공적 개최

- 산업자원부 및 한전,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업체의 전시디스플레이 및 전시회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그동안 시행착오 및 어려움을 해소하여 2005년부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됨



◇ 2005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최개요 ◇

- 일 시 : 2005. 10.12(수)~14(금)[3일간]
- 장 소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일산소재)
- 규 모 : 10,611㎡

※ 전시장 변경사유

- 2005년 10월 이후 서울무역전시장 개관 불투명
- 전자전 동시개최(가칭 "한국전기 · 전자산업대전")로 시너지 창출
- 산업자원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대형화 · 국제화)에 부응
- 전기전 개최장소 정착화로 전시회 이미지 제고